

『영주어문』 1~15집 목차

제1집

- 오창명, 「제주도지명에 나타나는 옛 어휘—한반도 중남부 계통의 몇 어휘를 중심으로」
- 문순덕, 「제주 방언의 장형 부정문 소고」
- 김미진, 「제주도 방언에서 빛깔형용사와 '하다'의 결합 양상」
- 좌혜경, 「민요의 話者 運用과 詩的 效果」
- 김동섭, 「제주 전래 농기구에 관한 일연구」
- 양영길, 「작중인물의 욕망 역동체계—최인훈의 '웃음소리'를 중심으로」
- 김동윤, 「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여성—외지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」
- 김지연, 「徐廷柱 詩의 象徵 研究」
- 김창호, 「詩에서의 공간 문제」
- 정용문, 「이상의 시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—'烏瞰圖 詩第四號'를 중심으로」
- 강영기, 「김수영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양상」

제2집

<논 문>

- 강영봉, 「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」
- 오창명, 「訓民篇의 順讀口訣과 '훈민편회' 고찰」
- 문순덕, 「제주도 방언 '시다'의 문법화 현상」
- 좌혜경, 「한국 민요 연구사」
- 문무병, 「제주도 토속신들의 역할과 기능」
- 김병택, 「박용철 시론—서구 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」
- 양영길, 「한국 근대문학사 구성 방법 연구」
- 김동윤, 「역사의 광풍과 진실의 동면—박화성의 '휴화산'론」
- 강영기, 「유하 시의 현실 인식」

<서 평>

- 양영길: 김병택 저 「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」(제주대학교 출판부, 1999)

- 김동윤: 오창명 저『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』(제주대학교 출판부, 1998)

제3집

<논 문>

- 강영봉, 「濟州語의 住居 生活 語彙」
- 김상조, 「한자에 대한 미신·과신」
- 허 춘, 「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」
- 오창명, 「物名의 借字表記 研究(1)—『園幸乙卯整理儀軌』를 중심으로」
- 문순덕, 「제주 방언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」
- 좌혜경, 「宮古 伊良部의 서정민요 ‘アヤグ’ 考」
- 김영화, 「재일 제주인의 세계(2)—小田 實의 ‘아버지’를 봅다」
- 김병택, 「無意味詩의 性格論」
- 허남춘, 「무욕의 세계에서 우러나는 향기—백이운 시조론」
- 양영길, 「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」
- 김동윤, 「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」
- 강영기, 「구비문학과 현대소설의 상호텍스트 관계 연구—설화 ‘이여도’와 이청준 소설 ‘이어도’를 중심으로」

제4집

<논 문>

- 강영봉, 「耽沒羅洲 小考」
- 허 춘, 「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」
- 오창명, 「『제주지명사전』의 서설적 논의」
- 문순덕, 「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」
- 고창근, 「제주도 방언 보조용언 ‘-어 불다’에 대하여」
- 김영화, 「제주 바다와 문학」
- 김병택, 「폭풍의 바다」에 나타난 인물들의 갈등과 해소」
- 양영길, 「白鐵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」
- 김동윤, 「해방 직후의 제주문학—『신생』을 중심으로」
- 강영기, 「김춘수 초기시 분석(I)」

○홍성운, 「1980년대 제주시인론」

<서 평>

○현승환: 현길언 저 『제주문화론』(탐라목석원)

○김지연: 양영길 저 『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』(푸른사상)

<강연자료>

○김병택, 「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」

제5집

<논 문>

○강영봉, 「濟州語 ‘비바리’ 語彙에 대하여」

○허 춘, 「우리나라 신문의 문장 검토」

○오창명, 「제주지명 수집·연구의 斷想」

○문순덕, 「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」

○송문석, 「퇴계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」

○강 철, 「蛇神說話와 그 小說的 變異」

○김선희, 「세계본풀이의 재인식」

○김병택, 「김지원 시의 두 지향」

○김동윤, 「북한소설의 4·3 인식 양상—양의선의 『한나의 매아리』론」

○김지연, 「이하석의 생태시에 드러난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연구」

○박미선, 「『순이 삼촌』의 1인칭 화자의 역할과 그 서술적 효과」

○강영기, 「김춘수 시학 연구—시쓰기 과정을 중심으로」

<서 평>

○변성구: 김영돈 저 『제주도민요연구』(민속원, 2002)

○문무병: 현용준 저 『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』(집문당, 2002)

○양영길: 김병택 저 『한국문학과 풍토』(새미, 2002)

○유승호: 고명철 저 『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넘는 민족문학론』(보고사, 2002)

제6집

- 김태곤, 「『정속언해』에 나타난 어휘 변천 연구」
- 허 춘, 「大衆文化의 우리말을 誤用」
- 오창명, 「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」의 차자표기 연구」
- 문순덕, 「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」
- 김상조, 「鍾山 李源命의 의식의 지향점과 야담에 대한 인식」
- 허남춘, 「중세 예악과 근대 수용—악(樂) 사상을 중심으로」
- 김동섭, 「행원리의 전래 농기구에 관한 연구」
- 변성구, 「제주도 민요의 분류체계」
- 양영자, 「해녀노래의 표현과 주제」
- 강 철, 「제주도 사신설화의 특성」
- 정덕준, 「개혁 개방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전개 양상과 특성」
- 홍희표, 「목월 시의 고전시적 원천」
- 김병택, 「林和 詩의 現實意識」
- 양영길, 「조연현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」
- 김동윤, 「이산하 서사시 「한라산」 연구」
- 김지연, 「강은교 시에 드러난 시적 화자와 자연대상 사이의 생태적 거리」
- 김남석, 「교실의 사회학」
- 박미선, 「1인칭 서술 상황에서의 시점의 네 가지 연구」
- 강영기, 「김춘수 시에 나타난 화자의 지향과 성격」

제7집

- 좌혜경, 「해녀노래 현장과 창자 생애의 사설 수용 분석-해녀노래 보유자 안도 인의 노래와 생애를 바탕으로」
- 김동섭, 「서귀포시 법환동 마을제 연구」
- 양영자, 「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」
- 김병택, 「문예사조에서의 반발이론에 대한 연역적 논증」
- 양영길, 「『조선문학통사』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」
- 김동윤, 「전란 후의 제주문학」
- 김지연, 「1960년대 제주 시단—김광협, 김용길의 작품 소고」

- 강영기, 「1970년대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작품 고찰—『제주문학』지
를 중심으로」
- 송문석, 「정서와 사고의 교융 연구」
- 하상일, 「박태일 시와 장소사랑」

제8집

- 강영봉, 「濟州語 ‘양지’ 語彙에 대하여」
- 오창명, 「頭無岳[두피오름]에 대하여」
- 김동섭, 「대정읍 평지동 마을제 연구」
- 부영근, 「石北 申光洙의 「耽羅錄」 考察」
- 김영화, 「재일 한국인의 삶—金吉浩의 작품세계」
- 김병택, 「시론에서의 반발 방식과 새로운 시론의 전개 양상」
- 전홍남, 「원망(願望)의 좌절과 해원(解冤)의 방식—이청준의 「신화를 삼킨 섬」
을 중심으로」
- 김동윤, 「제주문학의 활성화 방안」
- 김남석, 「시나리오 「시집가는 날」의 영상 미학 연구」
- 강영기, 「운동주 동시의 두 지향성」
- 강종호, 「1920年代 大衆文學論頭 小考—프로 陣營의 論議를 中心으로」

제9집

- 최용기, 「남북의 말과 글」
- 오창명, 「국어사전의 오류에 대해서」
- 문순덕, 「제주지역 신문광고에 나타난 여성대상어」
- 김동섭, 「세화리 오일장에 관한 연구」
- 양영자, 「새당본풀이 연구」
- 김병택, 「지역문화사의 서술 대상론」
- 전홍남 · 박종효, 「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」
- 김남석, 「두 개의 4·3」
- 임준서, 「한국 현대희곡에 반영된 성리학적 세계관 연구—오태석 · 신명순 · 이
윤택의 희곡을 중심으로」

- 강영기, 「4·3시의 의미 흐름과 문학적 형상화」
- 강종호, 「1930년대 대중문학론 소고—전반기 논의를 중심으로」

<자료해제>

- 이성훈, 「‘해녀 노 젓는 노래’ 수록 자료집 개관 및 해제」

제10집

- 오창명, 「국체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」
- 김상조, 「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」
- 좌혜경, 「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옹」
- 문순덕, 「제주도의 도감의례」
- 김동섭, 「제주도 전래 ‘초재민속품’에 관한 연구」
- 김동윤, 「계용묵의 제주체험과 문학」
- 강영기, 「제주국체자유도시와 지역문화 교육」
- 강종호, 「1930년대 대중소설론 소고—후반기 논의를 중심으로」

제11집

- 오창명, 「火器都監儀軌(1615)의 차자 표기 연구」
- 부영근, 「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」
- 김새미오, 「梅溪 李漢雨의 시문학 일고」
- 강경호, 「頤齋 曹友仁의 가사문학 연구—<出塞曲>과 <續關東曲>을 중심으로」
- 좌혜경, 「민속적 관점에서 살핀 제주민요 요종별 특성」
- 김동섭, 「보목동 정포제 연구」
- 변성구, 「제주도 장례의식요의 전승실태와 사설 유형」
- 양영길, 「지역문화의 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—제주 지역문화를 중심으로」
- 강영기, 「제주시인들의 시 인식 대상과 문학적 형상화」
- 현철종, 「한국 프로시론의 형성 배경 고찰」

제12집

- 오창명, 「추자면(楸子面)과 지명」

- 문순덕, 「제주방언 ‘불다’의 문법화 과정」
- 김순자, 「제주의 떡 이름」
- 김상조, 「조선 사대부의 자아를 보는 눈」
- 부영근, 「白湖 林悌의 「南冥小乘」研究」
- 양영자, 「제주지역 가창유희요 고찰」
- 김병태, 「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그림의 수용—매개를 통한 수용을 중심으로」
- 김동윤, 「지역문학의 존재 방식」
- 김남석, 「연극인 임서방(任曙昉) 연구—193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」
- 이순욱, 「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」
- 강영기, 「제주 시인의 제주 대상 시 고찰」
- 현철종, 「신경향과 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」

제13집

- 오창명, 「제주도 지명 연구(1)—『朝鮮地誌資料』의 ‘濟州郡 中面’ 지명을 중심으로」
- 강영선, 「개화기 국어·국문운동의 양상과 특징」
- 허 춘, 「僞計譚 研究」
- 김진하, 「설문대할망 신화의 변용과 송당신화」
- 김동윤, 「제주소설의 문학콘텐츠화 방안—‘배비장전’과 ‘바람 타는 섬’을 중심으로」
- 한정호, 「문화예술행정과 지역문학의 실천 방안」
- 고명철, 「제주문학-제일제주문학’과 민족문학의 연동에 관한 탐색」
- 임준서, 「李箱 시의 영화화 사례에 관한 연구」
- 강영기, 「시 속에 나타난 마라도」
- 김수미, 「설화와 가족으로 소통시킨 역사와 현실—고은주 장편소설 『신들의 황혼』론」

제14집

- 강영봉, 「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」
- 김동섭, 「제주시 아래2동 ‘이사제’ 연구」
- 부영근, 「濟州 山水를 形象化한 漢詩 小考」
- 張裕昇, 「金鎮甲傳’ 研究」

- 강문종, 「춘향전’ 다시 읽기—抵抗보다 投降」
- 김병택, 「시의 음악 수용」
- 전홍남·소형수, 「해방기 황순원 소설의 현실 대응력—『별과 같이 살다』를 중심으로」
- 장미영, 「‘흔불’의 언어와 탈주의 홀로그램」
- 김봉희, 「광복기 신고송의 회곡 연구」
- 강영기, 「시에 나타난 ‘서귀포’의 문학적 공간 의미」

제15집

- 강영봉, 「제주어 표기법’에 대하여」
- 정승철, 「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」
- 강정희, 「형태에 관한 제주방언 표기」
- 김순자, 「제주 바다의 소라·고등·전복 이름」
- 좌혜경, 「제주 생업 문화의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」
- 문무병, 「제주 굿의 깃발과 종이 무구」
- 김병택, 「시의 건축공간 수용」
- 최미진, 「로맨스 소설에 나타난 아름다운 몸의 도전과 한계」
- 강영기, 「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-학습 방법 고찰」